

# '4전5기' 권순우 메이저대회 본선 첫승

크위아트코스키에 3-1 역전승  
US오픈 테니스 64강 진출  
이형택·정현 이어 한국 3번째  
세계 17위 사포발로프와 격돌

권순우(73위·CJ후원)가 한국 남자 선수로는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다. 단식시청 소속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2000달러) 첫날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손 크위아트코스키(187위·미국)에게 3-1(3-6 7-6(7-4) 6-1 6-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권순우는 이형택(은퇴)과 정현(144위·제네시스 후원)에 이어 한국 남자 선수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2회전에 오른 선수가 됐다. 이형택은 2000년 US오픈, 정현은 2015년 US오픈에서 각각 메이저 단식 본선 첫 승을 거뒀으며 권순우 역시 US오픈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이덕희, 박성희, 조운정 등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이긴 경력이 있다. 권순우는 2회전인 64강전에서 테니스 사포발로프(17위·캐나다)를 상대한다. 이 경기는 이틀 뒤인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권순우는 1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상대에게 내주며 0-3으로 끌려갔고, 결국 세트 초반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도 게임스코어 4-4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긴 권순우는 2세트까지 내줄 위기에 몰렸다. 특히 이때까지 상대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진 크위아트코스키의 서브 게임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때 상대 서브 게임을 처음으로 브레이크, 경기 분위기를 바꾼 권순우는 결국 세트스코어 1-1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먼저 자신의 서브 때 한 점을 내줬으나 곧바로 상대 더블 폴트로 한숨을 돌렸고, 이후 내리 3득점 하며 4-1까지 앞서나갔다. 다 잡은 듯했던 2세트를 놓친 크위아트코스키는 3세트 이후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권순우는 3, 4세트에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2시간 49분 만에 2회전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권순우는 서브 에이스에서 3-11로 열세였지만 공격 성공 횟수에서 50-33으로 우위를 보이며 3세트 이후 경기를 주도했다. 권순우는 2018년 호주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2019년 윔블던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까지 네 차례 도전에서 모두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1회전을 통과한 권순우는 단식 본선 2회전 상급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확보했다. '4전 5기'에 성공한 권순우의 다음 상대 사포발로프는 권순우보다 2살 어린 1999년생이지만 이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도 한 차례 있고, 개인 최고 랭킹이 올해 1월 13위인 톱 랭커다. 원순잡이 사포발로프는 2017년 US오픈 16강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이날 앞서 열린 1회전에서 서베스천 코르다(205위·미국)를 3-1(6-4 4-6 6-3 6-2)로 물리쳤다. 권순우는 "초반에 너무 긴장해서 생각한 플레이를 못 했지만 2세트 위기에 브레이크를 하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며 "2회전 상대는 랭킹이 높은 선수지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권순우가 1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첫날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손 크위아트코스키(187위·미국)를 상대로 강력한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일럽 이완(26·호주·가운데)이 1일 세계 최고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셋째 날 3구간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표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계 이완, 투르 드 프랑스 3구간 우승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일럽 이완(26·호주)이 세계 최고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셋째 날 3구간 우승을 차지했다. 이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시스테롱까지 198km를 달리는 3구간 경기를 5시간 17분 42초 만에 달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완은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시속 69km로 어택에 성공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 어머니 노은미 씨와 호주인 아버지 마크 이완 씨 사이에서 태어난 이완은 지난해 투르 드 프랑스에서도 3개 구간에서 정상에 올랐다. 그는 2015년 한국 일주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에 출전해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키가 165cm에 불과하지만 폭발적인 주력으로 '포켓 로켓'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완은 "이 대회는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모두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스에서 우승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완은 대회 개막 전에 스태프 두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첫날 경기에서는 충돌 사고로 팀(로토 수탈) 동료 두 명이 다쳐 이탈하는 악재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 그는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개막전에서 두 명을 잃어서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해냈다"고 말했다. 1~3구간 누적 개인종합 선두는 칠리양 알라필립(프랑스)이 유지했다. /연합뉴스

## '멀티골' 펠리페 18라운드 MVP

광주 외인 3인방 모두 '베스트 11'에 '멀티골'로 광주FC의 승리를 이끈 펠리페가 K리그 18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18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대구FC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골을 넣으며 광주의 6-4 승리를 이끈 '해결사' 펠리페가 MVP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는 이날 경기 시작 2분 만에 대안에게 선제 골을 내줬지만 펠리페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6골을 몰아넣으며 4경기 만에 승리를 가져왔다. 0-1로 뒤진 전반 23분 엄원상이 얻어낸 페널티킥 찬스에서 펠리페가 키커로 나섰다. 대구의 골대

를 가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펠리페는 3-2로 앞선 후반 17분 윌리안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 펠리페는 이날 활약으로 10득점 고지에 오르며 광주 소속 외국인 선수 1부리그 최다 득점 기록(기존 8득점)도 새로 썼다. MVP 펠리페와 함께 윌리안·아술마토프 등 광주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모두 베스트 11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무패 행진의 주역인 윌리안은 1골 1도움의 활약을 했고, 광주 수비의 핵인 아술마토프도 이날



마수골을 장식 하면서 골 퍼레이드에 함께 했다. 6골을 앞세워 7위로 뛰어오른 광주는 시즌 첫 베스트팀 타이틀을 차지했다. K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골 타이 기록이 작성된 광주와 대구의 경기는 18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두드리니 열렸다...울산 주니오 이유있는 득점 선두

K리그 부가데이터 부문별 1위 보니  
최다 유효슈팅 49개에 21골 터뜨려  
광주FC 펠리페, 공중볼 싸움 최고  
아술마토프, 장거리패스 성공률 선두  
윌리안, 가장 많은 6차례 탈압박 성공

두드리니 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일 'K리그 부가데이터'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18라운드까지 진행된 K리그1에서 프로축구 울산현대의 '골무왕' 주니오가 가장 많은 49개의 유효슈팅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1개가 골대를 뚫으면서 주니오는 독보적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득점 2위는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로 12골. 이어 대구FC의 세징야, 광주FC 펠리페가 10골로 뒤를 잇고 있다. 포항 팔시오스는 51차례 드리블을 시도해 가장 많은 34번 상대 선수를 돌파했다. 전북 현대 한

교원은 56차례 시도 중 33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다. 강원FC의 김영빈은 가장 정교한 패스 실력을 과시했다. 1312차례 패스를 한 김영빈은 1195개의 공을 동료 앞으로 배달하면서 91.1%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전북 손준호가 1422번의 패스를 시도해 1191번 성공, 83.8%의 성공률로 뒤를 이었다. '키패스' 부문에서는 대구 세징야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세징야는 44차례 슈팅으로 이어지기 직전 마지막 패스를 장식, 경기당 2.75개의 키패스를 자랑했다. 37차례 키패스(2.64)를 기록한 포항 팔로 세비치가 2위다. 30미터 이상 멀리 패스를 한 '장거리 패스' 부문에서는 전북현대 손준호가 가장 많은 153개를 성공했다. 251차례의 시도 중 153개가 패스로 이어지면서 61%의 성공률을 보였다. 광주FC 아술마토프는 166차례 장거리 패스를 시도, 110차례 성공을 이루며 전체 3위에 올랐다. 성공률은 66.3%로 1위 손준호보다 더 정교함을 과시했다. 아술마토프는 상대의 볼과 패스를 123차례 '차단'하면서 이 부문 1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경기당 7.69개의 공을 루즈볼로 만들며 급한 불을 껐다. 광주 홍준호는 수비를 위해 공을 건어내는 '드리

어', 상대 슈팅을 막아내는 '블락' 부문에서 각각 5위(66차례)와 3위(14차례)에 올랐다. 홍준호는 태클 실력도 발휘했다. 23차례 태클을 시도해 19차례 성공했다. 성공 횟수로는 27개의 1위 박종우를 필두로 전체 5위지만, 성공률은 82.6%로 상위 5위권의 선수 중 가장 높았다. 광주의 193cm 장신 공격수 펠리페는 '공중볼' 싸움에서 1위에 올랐다. 펠리페는 138차례 공중볼 경합에서 승자가 되면서 1위, 아술마토프는 68차례 성공으로 5위에 올랐다. 최근 광주 상승세의 주역인 윌리안은 가장 많은 6차례 탈압박에 성공했다. 탈압박은 상대 압박을 이기고 소유하고 있던 공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 '킵터' 여름은 루즈볼을 154차례 가져오면서 '획득' 부문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의 골키퍼 조현우는 18경기에 모두 나와 81.67%의 선방률을 보이며 '빛연우'의 면모를 보여줬다. 조현우는 상대의 유효슈팅 49개를 막아내면서, 11실점만 기록했다. 전북현대의 수문장 송병근은 37개의 유효슈팅을 막고, 13실점을 하면서 74%의 선방률로 2위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태넷
2관	태넷, 반교: 디텐션
3관	오케이 마담,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4관	오! 문희
5관	오! 문희
6관	태넷
9관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7관	씨네커를 오! 문희
8관	다만 앞에서 구하소서, 고스트 오브 워,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